

‘건설공사관리 시스템의 개발’

-아사달-

김문현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동지역의 해외건설 붐은 한때 해외건설 수주만 1년에 100억불을 돌파하는 신화를 이룩하였다. 해외건설은 수많은 건설기술자, 기능공들의 문자 그대로 ‘피와 땀’으로 쌓은 건국 후 최대의 경제 돌파구였으며, 오늘날 한국경제의 초석이 되었다. 해외건설 초기의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 SERI가 기여한 비화 하나를 예로 들겠다.

1975년 초가을로 기억되는 어느 날 퇴근 무렵, 당시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이며 동남아와 중동 지역에 가장 먼저 진출한 삼환기업의 중요 간부진 6~7명이 갑자기 찾아왔다. 그들은,

“우리나라 해외건설이 본격화 된 후 최초의 대규모 공사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해군기지건설 공사를 천신만고 끝에 수주하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된 지 약 6개월이 되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기성고를 못 받고 있으니 KIST가 좀 도와주어야겠다.”

라는 것이었다. 내용인 즉, 당시 최대의 공사인 이 프로젝트(SNEP)의 공사 감리를 미국 C. O.E.(Corps of Engineers ; 공병단)가 맡고 있는데, 매달 기성보고를 PERT/CPM 기법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시는 해외건설 초기여서 수주에만 급급하여서 이러한 계약조건을 자세히 검토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중이었는데 매달 기성고를 신청해도 주지 않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공사 진척 보고에 관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성고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

다. 비상이 걸린 삼환에는 도저히 자체 해결할 기술력이 없기에 백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의 용역회사에 알아보니 엄청난 용역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는 수 없이 그 당시 최종환 사장(현 삼환그룹회장, 전경련부회장)이 직접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2년 전에 홍콩 KIST를 방문했던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홍콩으로 간부들을 보냈던 것이다. 삼환기업은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로 진출한 회사였기 때문에 최 사장이 한·사우다 친선협회장을 맡고 있었다.

1973년 리야드 시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의 당연한 VIP방문 코스인 KIST에 시장을 안내하였다.

KIST 안에서도 전산실은 필수코스여서 이 당시 성 박사께서 전산실 업무 소개를 할 때 - 상대방이 건설 관계에 관심이 많으리라 생각되어서 - 주로 당시 토목, 건축팀의 업무를 소개하면서,

“공사관리를 PERT/CPM 기법으로 전산화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한 것을 최 사장이 기억해냈기 때문이다. 하루가 급하니 2주일내에 기본적인 기성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었다. 당시 CDC에서 제공하는 패키지가 있었으나 C.O.E.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양식과 입력 가능한 자료의 내용이 달라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처리하기로 했다. 알고리즘은 이미 익숙한 분야여서 흐름도를 작성한 후 이춘희 씨와 거의 2주간을 매일같이 새벽까지 일하였다.

당시는 항공편이 많지 않아서 하루를 연기하면 일주일 후에 결과를 공수해야 되며 따라서 1개월분 기성고가 늦어지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되었다.

그해는 추석 무렵인데도 새벽에 작업대 위의 닭털침낭 속에서 잠깐만 잠을자도 몹시 춥게 느껴졌다. 하루는 다른 연구원들이 출근할 때까지 작업대 위에서 자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 약속된 날자에 5~6쉬트 박스 분량의 보고서의 인쇄가 끝날 무렵, 가을 새벽 임업 시험장의 뿌연 미명 속에서 아침해가 솟는 것을 보면서 고객이 도착하기를 연속된 피곤함 속에서도 뿌듯한 만족감과 자신감으로 기다렸다. 이 보고서를 갖고 가서 그 동안 밀렸던 기성고를 모두 받아내고 그후 매달 진척자료가 공수되어 오면 변경된 보고서를 처리해서 보내 주었다.

삼환측에서는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공사 기성고를 받았는데도 마치 우리가 일 전체를 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고마워했다. 그 보답으로 당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회원제 클럽인 31 빌딩 31층 서울클럽에서 사장단이 우리 팀에게 근사한 저녁을 내기도 했다. 이 작업과정에서 자료 전달과 결과 점검을 위해서 홍릉에 매달 출근하던 삼환의 김영우 씨는 그후 미국 MIT에서 공사관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보스톤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분야 S/W 컨설팅 회사를 갖고 있다. 필자도 그후 프랑스에 유학 가서 이 분야의 알고리즘 개발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여 귀국 후, 본격적인 패키지 개발에 착수 아사달이라는 공사관리 전산 시스템을 보급하여 중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8개공구에 아사달의 P/C버전인 PROMATE가 활용되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매주 중부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문득 문득 그 당시 2주간의 연속 야근 끝에 좋은 결과를 갖고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일을 맡겨 준 고객을 맞이할 채비를 하며 가슴 설레던 추억에 잠기곤 한다.